



『새례자 요한의 설교』,
피터 브뤼겔, 1566년.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효주 (뜻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이사야 61,1-2ㄱ.10-11

화답송



(후렴)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 - 네.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그분이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테살로니카 1서 5,16-24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복음 | 요한 1,6-8.19-28

성가 | 입당성가 [481] 예물준비 [510]
영성체 [216] 파견성가 [89]

미사 봉헌

연미사

어머니 김주연 안나 3주년 기일
고현실
정두산 마리아
황창현, 최정인 안나
김영수 베네딕토
김용수 요셉, 김기순 안나
황경희 루치아

봉헌

송영중 요셉
최은자 세실리아
정릿다
황경숙 수산나
한지영 세실리아
김성중 다두
황경숙 수산나

생미사

원준성 프란치스코
박수정 크리스티나, 박수진 줄리아 생가정우혜
김혜숙 마리아, 김택영 알버트
조남록 미카엘, 조성자 데레사 영육건강
이서진 빅토리아
박혜화 도미니카
이희철 아오스딩
양미숙 마리아 영육건강
문홍빈 안셀모
이경희 루시아, 김경화 루시아, 윤루시아

봉헌

김승범 프란치스코
양미숙 마리아
익명
이미숙 안나
허인선
익명
익명
이안나
가족
이수산나

| 날짜 | 해설 | 1독서 | 2독서 | 보편 지향기도 | 성찬 봉사 | 복사 |
|-------|---------|--------|------|---------|-------|----------------------------|
| 12/17 | 정콘솔시아 | 이스테파노 | 민안젤라 | 민안젤라 | 김비비안나 | 김실비아 최사도요한 |
| 12/24 | 김대건안드레아 | 김프란치스코 | 장레아 | 장레아 | 김카나리나 | 한데레사 최사도요한 양글라라 김실비아 조바실리오 |
| 12/25 | 백안드레아 | 민필립보 | 민데레사 | 민데레사 | 민안젤라 | 한데레사 최사도요한 양글라라 김실비아 조바실리오 |

미사, 성사, 교리 안내

| | |
|------------------|--|
| 주일 미사 | 오전 09:15 윗 성당 |
| 청년 미사 |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
| 고해 성사 |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
| 혼인 성사 | 신부님께 직접 문의 |
| 유아 세례 |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
| 봉 성 체 |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
|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



▶오늘 친교모임 없습니다.

미사직후 아래성당에서, 판공성사가 시작되오니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분들을 위한 판공성사

성탄전 깨끗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으시도록 고해성사에 초대합니다.

| 일시 | | 고해 사제 |
|---------------|-------------------|-------------------------------------|
| 12/17 (주일) | 미사직후부터 ~1:30pm | 김찬미 가비노 신부(서울 대교구) |
| | | 조홍래 베드로 신부 (뉴욕교구 St.앤드류 소신학교 학장) |
| | | 김진열 가롤로 신부 |

▶판공성사(辦公聖事)

'판공성사'는 한국 교회에서 정한 신자의 6가지 의무, 즉

1.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 미사 참여
2.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고해성사
3.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영성체. 4. 금식재와 금육재 준수
5. 교회 혼인법 준수. 6. 교회 유지비(교무금) 부담

중에 2.번째 규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참된 신심 생활을 하려면, 자주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함으로써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으로, 또는 냉담 하든지 하여 그동안 성사를 보지 않았다면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의무로 성사생활을 하도록 권유합니다.

이를 '판공성사'(辦公聖事)라고 하며, 판공성사는 교회의 가장 큰 축일인 부활(봄 판공)과 성탄 전(가을판공), 두 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우분들! 판공성사를 통해 가볍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교우분들의 공동 보속 (2024.1월까지 하세요~)

보속은 하느님의 조건 없는 용서에 대한 감사의 봉헌입니다.
<기도보속 1가지>+<실천보속 1가지>를 선택하여 실천.

| 기도 보속 (1가지 선택) | 실천 보속 (1가지 선택) |
|------------------------------------|--------------------------------------|
| ①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 5단 바치기 (어려운 이웃위해) | ① 매일 감사의 표현 하기 (3일동안) |
| ② 루가복음 1장~ 2장 읽기 | ② 가족, 친구, 교우, 은인등. 감사의 카드 또는 이메일 보내기 |
| ③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자리 들기 전에 성호경 긁기(9일) | ④ 쉬는교우 주님께 인도하기 |
| ④ 야고보서 1장~ 5장 읽기 | ③ 환자, 어르신, 부모님, 이웃 말벗 해드리기, 방문하기등 |

*위 공동보속 실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각자 보속을 정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Youth 견진성사 교리반에 초대합니다~

대상: 6학년 이상~ 12학년까지의 영어권 청소년

견진성사일: 2024. 3/30(부활성야)

첫모임: 2024년 2/18(주일) 10:30am

문의 및 신청: Sr.효주 347-834-5784

"청소년의 웃음소리는 ☺ 하느님의 음악입니다. ♪"
청소년 한사람, 한사람을 교회로 초대해 주세요~

▶2024년 달력 배부합니다. 사무실에서 찾아가세요

▶성경공부(BIBLE ACADEMY)12월 겨울방학입니다.- Sr.효주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c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FLORA YANG)
 무역 수입 IMPORT & 수출 EXPORT
 657-337-5130
 marketing@c2lusa.com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 nycacu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더큰집
 TEL. 212-564-8238

WONJO
 New Wonjo
 212-695-5815

그리온 **miss KOREA**
 10 W 32nd St. 1,2,3 FL, New York, NY
 212-594-4963 전 스테파노

HB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Tel : 347-840-2112
 (32 St.- 33 St.) Fax : 212-631-8070
 New York, NY 10001 hanbittour@gmail.co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광고주를 찾습니다.

목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 22,025 단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요한 세례자

어떤 신부님의 강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화가가 바람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는 보이지 않는 바람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갈대밭 길을 산책하게 됐습니다. 갈대들을 보며 산책하던 그 화가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서 붓과 스케치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바람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화폭에는 좌우로 그리고 위아래로 흔들리는 갈대들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화가는 갈대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볼 수 있겠죠. 이탈리아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만들었던 키아라 루빅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성경이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성경을 다시 쓸 수 있도록,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평생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요한 세례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요한 세례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요한 세례자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평생 주님의 길을 곧게 내는 일을 했습니다. 곧 사람들이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설교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김기현 요한 세례자 신부

본당 재정 관련 알림

현재 미국 본당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난 땡스기빙 연휴때 10만불 모금이 있었고, 올해 연말까지 20만불 정도 더 모금을 한다고 합니다.

본당은 매 분기별 교구 납입금 (4만7천불)이 있고 성당 운영에 매달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입이 이를 충당하지 못해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기부금 등을 통해 조성된 기금에서 부족분을 매워 왔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많이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한인 공동체도 미국 본당에 소속되어 함께 생활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 함께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합심하여 동참하고자 합니다.

12월 크리스마스때까지 저희 한인 공동체의 기금을 모아 한꺼번에 본당 신부님께 전달 예정이오니, 어려운 가운데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당 재정 지원을 위한 1인, 100불 모금 운동

미국 본당의 재정을 위한 교우 1인당 100불 봉헌 운동을 진행하오니 교우분들은 정성껏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heck 또는 현금. 장소: 사무실, 재무데스크,